

## 2023 순전한 믿음 2

### 깊은 기도를 통해 열리는 진짜 성령의 역사(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기도)

[갈라디아서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1. 기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기도의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라는 고백이 나온다.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원래의 모든 기능들이 복원이 되는 순간이 온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과 연합된 엄청난 존재였다. (상상하기도 벅차다) 하나님처럼 영의 존재를 말한다.

'영'은 생명이다. 모든 피조물의 본질이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 자체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이다.

#### '성령 충만의 증거-영의 사람의 특징'

##### (1)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한다 -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갈라디아서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하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육의 것을 차단하는 삶이 시작된다. 육의 것이 차단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 (2)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내 육의 자아가 처리되는 곳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기로 결정했다. 죽어야 사는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죽고 사는 삶 = 십자가를 중심에 둔 삶)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 (3) 기도가 없는 혼적인 신앙에서 기도가 있는 영적인 신앙으로

혼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도'가 없는 신앙이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혼의 힘으로도 가능하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알 수도 있다. 그런데 기도는 '영'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기도는 자기를 비워 내는 자아 성찰의 어떤 명상과 다르다.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정확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성경은 공부할 수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혼적인 신앙인지 영적인 신앙인지 구분이 된다.

##### (4) '기도'가 호흡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21:36] 이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바울 사도는 기도를 쉬지 말라고 권면한다.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이다. 호흡을 쉬는 것을 보았는가? 호흡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 있을 수 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있다.

#### (5) 깊은 기도를 경험 -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남는 단계가 깊은 기도이다

[빌립보서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잠언 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는 혼적인 생각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절대 무익하다. 근심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도'이다.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깊은 기도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남게 하는 단계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이 주시는 평강, 기쁨, 소망, 용기, 담대함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한다. **깊은 기도란 무엇인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의 고백이 깊은 기도이다.**

## 2.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난다

### (1)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얕은 표면적 기도를 넘어서야 한다. 깊은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생겨난다.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적 영역이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기도'이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얻을 수 있다.

### (2) 내가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출애굽기 4:1-4] 1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출애굽기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시점은 광야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80세의 평범한 노인이었을 때이다. 젊었을 때의 모세가 아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그 엄청난 부르심 앞에 모세는 스스로를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주신다. 지팡이는 내 몸을 의지하는 '막대기'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흔한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가 된 것은 모세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마른 막대기일 뿐이다.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에 충만할 때 지팡이는 권능이 된다.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

내 자아가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 내 혼이 죽고 영이 사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 깊은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무익한 마른 막대기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때 회개가 터진다. 날마다 회개가 나온다. 그때 겸손히 엎드릴 수 있다. 모든 주도권을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다.